

5. 나는 바울이 말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 생각하며, 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까?

Do you consider this knowledge to be the most important knowledge in your life, and do you try to gain it?

6.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 그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삶 가운데 잘 드러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You cannot compare knowing Jesus Christ to any knowledge of this world. Therefore, let us take time to decide what we need to do more specifically to demonstrate this knowledge in our lives.

### III. 삶의 열매를 거두며(Harvesting the Fruits of Life)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지식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르고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지식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Paul changed after meeting Jesus Christ. He wrote a letter to the saints at Philippi and confessed that he considered all the things that had benefitted him in the past to be rubbish. This was because all the knowledge did not help Paul to understand Christ, and the greatest knowledge was knowing Jesus Christ. Jesus died for the sins of all humanity; no other knowledge from the world can be more precious than this knowledge. If you consider something else to be more important and follow it, you will realize you are not living as a true Christian. "Knowledge of Christ" is more precious than anything from this world and should not be traded. It is the ultimate knowledge. Let us seek to be God's children who work endlessly to know Christ in our lives.

## 2018년 12월 목장 모임 교재

#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 '가장 고상한 지식'

빌립보서 3장 1절-9절

### 알리는 말씀

1. 목장별로 섬기게 될 협력 선교지를 확인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 및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각 목장은 목장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모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곡 찬양 / 대표기도 / 성경봉독 / 교재나눔 / 중보기도 / 주기도문
3. 12월 네췌주 목자모임은 방학입니다. 목장별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목자들은 매주일 출석 보고 및 목장 보고를 매주 월요일까지 카톡방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수요 중보기도가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별관2층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 전체 중보기도제목

1. 웨스트힐 장로교회의 리더쉽(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자)을 위해.
2. 공동체의 연약한 성도와 가정을 위해(영적, 육적, 경제적.....)
3. 다음세대(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EM대학부, KM청년부)를 위해
4.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각 목장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장 고상한 지식**  
The Highest Knowledge

빌립보서 3:1-9  
Phi. 3:1-9

1<sup>1</sup>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sup>2</sup>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sup>3</sup>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sup>4</sup>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sup>5</sup>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sup>6</sup>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sup>7</sup>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sup>8</sup>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sup>9</sup>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 Finally, my brethren, rejoice in the Lord. To write the same things again is no trouble to me, and it is a safeguard for you. 2 Beware of the dogs, beware of the evil workers, beware of the false circumcision; 3 for we are the true circumcision, who worship in the Spirit of God and glory in Christ Jesus and put no confidence in the flesh, 4 although I myself might have confidence even in the flesh. If anyone else has a mind to put confidence in the flesh, I far more: 5 circumcised the eighth day, of the nation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Hebrews; as to the Law, a Pharisee; 6 as to zeal, a persecutor of the church; as to the righteousness which is in the Law, found blameless. 7 But whatever things were gain to me, those things I have counted as loss for the sake of Christ. 8 More than that, I count all things to be loss in view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but rubbish so that I may gain Christ, 9 and may be found in Him,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derived from the Law, but that which is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comes from God on the basis of faith,

**I. 마음의 문을 열며(Opening Your Heart)**

지식을 찾는 일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지식 습득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고상한 지식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지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ne of the most desired virtues today is acquiring knowledge. Everyone seems to be trying hard to fill their minds with new information so they will not lag behind. Yet, the Bible says the highest knowledge does not come from the world, and that Christians need this knowledge more than any other knowledge. This highest knowledge the Bible talks about is the absolute standard for Christians who are living in the sinful world. Let us examine this knowledge Paul emphasized through today's scripture.

**II. 말씀의 씨를 뿌리며(Sowing the Seed)**

1.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삼가라고 충고했으며, 동시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까?(2-3절)

What did Paul forbid to the Philippians in his warning to them? (Phil. 3:2-3)

2.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으며, 이처럼 자세하게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4-6절)

How did Paul introduce himself? What was the reason for clearly identifying himself? (Phil. 3:4-6)

3. 바울은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바울의 생각이 그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7-8절)

What was it that caused Paul to change his mind? (Phil. 3:7-8)

4. 바울이 생각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무엇이며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highest knowledge according to Paul?